

# 제14회 대전효문화부리축제 성황리 개최



제14회 대전효문화부리축제가 10월 13일(금)부터 15일(일)까지 3일 동안 대전시 중구에 위치한 뿌리공원 및 원도심 일원에서 안동권씨 등 200여 문중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광역시 중구가 주최하고 대전효문화부리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본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문중 입장 퍼레이드는 14일 토요일 10시에 거행되었다. 퍼레이드가 시작되기 전에 32사단 2작전사 505여단의 현역 용사들이 각 성씨별 깃발을 들고 질서정연하게 도열해 장엄한 광경을 연출했다. 입장은 대전시 취타대를 필두로 여가행렬이 뒤따라 시작되었다.



대전종친회 회원들이 안동권씨 문중 입장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대전종친회(회장 권용기)에서는 권용기 회장을 비롯하여 권동원 참의공 종중 이사장, 권인순 탄옹공 이사장 등 50여명의 족친들이 관복을 입고 안동권씨 특성 유래와 시조 묘소 사진 및 안동권씨 조형물 사진과 도원수 권윤장군의 피켓을 들고 입장하는 장면을 연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방문단이 참석하여 해외 동포가 참석하는 의미있는 행사가 되었으며, 카자흐스탄 고려일보 100주년 기념 전시관도 개설하여 눈길을 끌었다. 추주막씨에서는 '같은 뿌리 한 조상에 근원이 같다'는 동근동조동원(同根同祖同源)이라는 문구를 깃발에 내걸었다. 문중별 입장 퍼레이드가 끝나자 대전종친회에서는 잔디광장에 마련된 문중 문화부리체험 안동권씨 부스에서 입진왜란으로 나라가 절절 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군윤장군은 행주대첩, 이치대첩, 독산성전투에서 승리하고 도원수로서 전쟁을 총지휘하여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명장이라고 소개하며 권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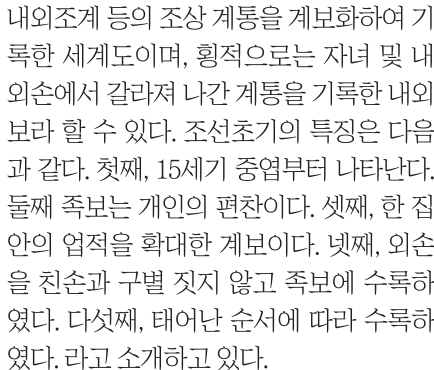


장군에 대한 역사 이야기도 듣고 '권윤장군 입체 퍼즐 만들기'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도록 찾아오는 방문객을 맞이했다.



권윤장군 입체퍼즐 만들기

대전 중구 뿌리공원 만성산에는 문중별 성씨 조형물이 244개 설치되어 있다. 안동권씨 조형물은 102번째로 송조와 변영을 상징한다. 한국족보박물관에는 한국의 족보가 전시되어 있는데, 현전하는 한국 최초의 족보로 1476년(성종7)에 간행된 안동권씨 성화보가 전시되어 있다. 족보박물관에 의하면 조선초기부터 본격적인 족보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조선에서는 혈통의 귀천과 집안의 위상이 높고 낮음이 신분을 판정하는 기준이었다. 그래서 과거에 응시, 승음(承蔭) 및 혼인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혈통과 명문 집안임을 증명하는 자료로 족보가 주목되었다. 조선에 들어와 세보 또는 족보라는 용어로 일반화된 족보가 출현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가 안동권씨 성화보(成化譜)이다. 안동권씨 성화보는 본인을 중심으로 부계와 함께 모계, 조모계, 증조모계와 그들의 외조모계 및 처



내외조계 등의 조상 계통을 계보화하여 기록한 세계도이며, 황적으로는 자녀 및 내외손에서 갈라져 나간 계통을 기록한 내외보라 할 수 있다. 조선초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5세기 중엽부터 나타난다. 둘째, 족보는 개인의 편찬이다. 셋째, 한 집안의 업적을 확대한 계보이다. 넷째, 외손을 친손과 구별 짓지 않고 족보에 수록하였다. 다섯째, 태어난 순서에 따라 수록하였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

특히 성화보의 기록상 특징을 살펴보면 이들은 물론 딸과 그 자손(외손)들을 모두 신고 있어 아버지쪽 성씨 자손과 구별하지 않았고, 자녀는 출생 순서로 기록하였



뿌리공원에 위치한 안동권씨 조형물



안동권씨 깃발을 들고 있는 505여단 용사

고 양자를 들인 기록은 나타나지 않으며, 이와 같이 성화보에 수록된 안동권씨는 약 380여 명인데, 타성 골 다른 성씨도 약 8000여 명이 실려 있다고 설명한다.

대전효문화부리축제에서는 전국 효문화 청소년 페스티벌과 맘미아 뮤지컬 갈라쇼를 비롯하여 전국 효문화 K-POP 경연대회 등도 펼쳐졌다. 대전효문화부리축제는 매년 36만여 명이 방문하는 전국적인 대형 축제이다.

권행완 편집국장

## 행주서원 추향제 봉행



행주서원(기사, 원장 권정택) 추향제가 10월 29일 10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에 위치한 행주서원에서 권정택 원장을 비롯하여 권오돈 안동권씨 추밀공파 회장, 권영주 매헌공 고문, 권오달 편집위원, 권태환 전 이사, 이남무 봉암서예원 원장, 정대채 용강서원 원장, 한영애 예절강사, 이현규 행주서원 부원장, 이성중, 박효순, 정동국, 최용근, 장한진 행주서원 유사와 권은경 예절강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권정택 원장

현관에는 초헌관 김보연 고양시 산림조합장, 아헌관 이창립 원당농협조합장, 종헌관 권성욱 안동권씨 문중대표, 선호승 보성선씨 문중대표, 변만섭 황주변씨 문중대표, 이진조 전주이씨 문중대표, 정종휘 압해정씨 문중대표, 김영호 뇌목당대사고양문화로 분방하고 대축은 이남무 봉암서예원 원

장이 맡아 봉행하였다. 행주서원에는 도원수 권윤장군과 행주대첩 때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운 변이중, 조경 장군 등 일곱 장수들의 위패도 함께 봉안되어 있다. 이번 행사는 고양문화원이 주최하고 행주서원이 주관하며 고양향교와 성균관유도회 고양시지부에서 후원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 울산 반곡초등학교 설립 공덕비 제막식 거행

권옥술 전 울산종친회장 부친 교사 부지 기증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반곡초등학교 설립 공덕비 제막식이 10월 28일 16시 반곡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졸업생과 주민을 비롯해 안동권씨 울산종친회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권명달 울산청장년회 회장, 권혁원 울산종친회 사무국장, 권옥술 전 회장, 권응목 울산청장년회 총무부장(왼쪽에서 두 번째부터)

반곡초등학교는 1943년 언양초등학교 반곡분교로 문을 열었는데 1946년 반곡리로 이전하면서 당시 권옥술 전 안동권씨 울산종친회 회장 선친(고 권포양權抱陽)을 비롯하여 권금성(權今成, 652평), 송석하(宋錫夏), 이관술(李寬述, 542평)씨 등 4명이 신축 교사 부지 총 3,250평을 기증하

여 1947년 4월 2일 개교하게 되었다. 이에 기증자의 뜻을 기리고자 반곡초등학교 설립 공덕비 제막식을 거행하였다. 공덕비는 천장수 울산시교육감 명의로 세워졌다.

권응목 울산청장년회 총무부장

## 2023년도 고려대전 대제 봉행

2023년도 고려대전 대제(大祭)가 10월 15일 경기도 파주에서 영신례(迎神禮), 신관례(晨禱禮), 초헌례(初獻禮), 아헌례(亞獻禮), 종헌례(終獻禮), 음복례(飲福禮), 절변두(撤邊豆), 송신(送神), 망요례(望燎禮) 순으로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고려대전에 위패가 봉안된 다섯 분 중 네 분은 모두 고려조에 태어나 고려조에 사망하나, 사복재(思復齋) 권정만은 고려조에 태어나 조선조에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그의 호가 심상치 않다. 호는 사복재(思復齋)인데, 이는 "고려 왕조가 다시 회복될 것을 생각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사복재는 1389년 최영이 주살되고 이색 등이 유배당하자 극력 간쟁하다 정몽주가 살해당했던 1390년 내직에서 김해부사로 쫓겨나 있다가 1392년 "조선조가 들어서니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와" "안동부의 임하현 옥산(玉山)의 도목촌에 은거했는데 태조가 승지(承旨) 벼슬을 내리고 여러 번 불렀으나 출사하지 아니했고 태종이 대사간과 대사헌의 벼슬을 내렸으나 끝내 나아가지 아니" (사복재실기, 행장)했다. 사복재는 고려에 절의를



지킨다는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정신으로 집 앞에 갈매기와 더불어 함께 한다는 반구정(伴鵝亭)이라는 정자를 지었다. 이는 옛날로 돌아간다는 '반구(返鵞)'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 한다. 또한 송도(松都, 고려의 수도 개성)를 받든다는 봉송대(奉松臺)를 지었는데 조선조에 들어와 '봉송(鳳松)'으로 바꾸게 되었다. 사복재는 안동의 옥산동 도목촌에서 1411년(태종11) 59

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후세 사람들은 그가 은거하던 마을을 '벼슬을 버린 마을'이라 하여 버림 기(棄)자와 벼슬 사(仕)자를 따서 기사리(棄仕里)라 불렀다. 반구정(伴鵝亭,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334호)은 봉송대와 함께 1720년 후손들에 의해 영주로 이전되었다. 현재 영주 구성공원에 위치한다.

권행완 편집국장

## 안동 능우회 10월 월례회 개최

안동 능우회(慶優會: 회장 권오익) 10월 월례회가 10월 10일 저녁 6시 안동시 안기천로(태화동) 안동권씨 안동종친회관 1층 '양반밥상식당'에서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러 권영호 사무국장은 경과보고에서 지난 5월 24일 서울에서 2023년 안동권씨 대종회 정기총회를, 지난 6월 10일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에서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顯德王后)의 기신제(忌辰祭)를 봉행하는 등 모두 6건의 동향을 보고했다. 재무보고에선 정기예탁금, 이월금, 잔액 등을 상세히 보고했다. 기타 토의에서 오는 11월 25일 능동재사에서 시조 묘소 추향제 봉행이 있으며 12월 12일에는 능우회 정기총회 때 신임 회장을 선출하고 아울러 송년회를 갖기로



했다. 한편 이날 월례회에 앞서 권오익 회장 등 회원 6명은 회원 단합과 건강을 위해 월영교와 호반나들이 길을 1시간가량 걸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나무다리 월영교(月映橋 길이 387m, 폭 3.6m)를 지나 길이 2,080m인 호반나들이 길을 걸었다. 이 호반나들이 길은 안동시 승격 50주년을



기쁘게 위해 지난 2013년 12월 조성했는데 안동댐 보조호수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맑은 물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산책로로 전국에서 이름이 나있는 곳이기도 하다. 현재 능우회원은 34명이며 격월제로 두 달에 한 번씩 짝수 달에 모여 회의를 한다.

권영건 보도부장

## 권희용 가수, 2023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수상

81세에 가수의 꿈을 이룬 권희용 가수가 대중가요부문에서 2023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사회봉사, 복지, 의학, 교육 등 각 분야에서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으로 국가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는데 기여한 공이 지대한 공로자에게 수여하고 있다.



권행완 편집국장